

보통 大統領 시대의 大學像 彫刻

朴 性 洙
(서울大 社會敎育科)

1988 년은 보통 사람 大統領의 시대가 열리는 해이며, 서울 올림픽으로 국제화의 시대가 황금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새로 등장한 大統領은 정치·경제·외교·국방·체육·문화 등 광범한 나라의 과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지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의 문제는 새로 등장한 盧政權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예상외로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특히 大學敎育의 課題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내포하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라고도 하겠다.

보통 大統領이 한국의 大學像을 어떻게 彫刻해 나가느냐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現實的 含意와 象徵的 意味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통 大統領 시대에 大學像이 더욱 毀破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된다면 우리의 앞날이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최후탄이 터지고 화염병과 돌이 난무하는 대학의 모습이나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 관료 제도가 그대로 남게 되고, 대학의 非倫理的 作態와 非生産的 弊弊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悲劇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를 내세운 盧泰愚 大統領이 한국의 대학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는 지대한 관심의 대상을 넘어서 우리가 조바심하여 기대하는 希望과 懇求의 的이 되는 문제이다.

韓國 大學의 課題로 선거 기간에 가장 부각되었던 自律性의 確保는 대학교육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大學은 高級의 頭腦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집단이다. 정부의 어느 부처나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大學은 최고의 정선된 高級頭腦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임에도 대학의 自律權을 억제하는 정부의 각종 제도적·비형식적 장치를 존속시키는 것은 자녀의 독립심 발달을 두려워하는 情緒 障礙 父母의 그것과 같은 病理的 現象이며 오히려 훨씬 더 큰 弊害를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大學의 自治權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政府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財政의 確保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정도에서 머물고 일체의 大學의 問題는 大學人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대학의 敎育 目的의 設定, 敎育課程의 構成과 運營, 總·學長이나 學科長 등의 모든 보직의 결정, 學生의 生活指導, 그리고 學生과 敎授의 選拔權 등을 완전하게 대학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심지어는 大學이나 學科의 設置

와 改廢, 定員制度 등도 완전하게 대학인에 넘기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自治權의 문제가 나오면 흔히 대학의 意思決定 能力이나 倫理性的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가 대학보다 더 倫理的이거나 合理的이라는 증거를 찾아 보기 어렵다. 대학의 질적 발전은 自己意思에 의한 決定과 施行의 권한이 주어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倫理的 成熟도 필요한 일이나 이는 학문과 문화의 성숙을 위한 사회 전체적 전략에서 검토될 문제이지 정부가 권한을 쥐고 있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民主化時代의 要請이 대학의 自律性 내지 自治權의 課題로 등장하여 많은 논의가 되고 있음에 반하여 國際化時代의 要請이 대학교육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별로 검토하고 있지 못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보통 대통령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國際的 競爭과 葛藤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관련된 수 많은 것들이다. 국경을 넘고 峯표를 뛰어 넘고 이제는 정치 이데올로기마저 초월하는 국제화의 물결에 우리들이 잠기기 시작했다. 물에 빠지느냐, 헤엄치느냐, 아니면 성능 좋은 배로 유유히 즐기며 대처하느냐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國際化時代에 부응하는 길은 大學院教育의 大的 革新과 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最高를 자랑하는 세칭 一流大學이 北美나 歐羅巴에서는 대학 인가조차 받을 수 없는 劣惡한 條件에 있다. 도서관에 갖추어진 책들, 교수와 학생의 비율, 교육 제정 등은 연구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수준이 못되고 있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頭腦를 길러내고 良質의 人力資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高級頭腦의 양성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분명 우리는 그 외국을 능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國運을 걸고서 고급 두뇌를 자체적으로 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고 하겠다.

대학원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정부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용단과 예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아니 革命的 投資를 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 잡고 그들과 대등한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욕심을 더 부려서 앞질러 가려면 우수한 人間資源, 곧 卓越한 能力을 지닌 人材를 生産하는 體制를 갖추어야만 될 것이다. 대학원 교육의 투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측면의 투자나 소비를 억제하면서도 이 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碩士나 博士課程만이 아니라 博士學位 以後의 研究課程도 선진국보다 더 알차게 마련하게 될 때 우리의 장래는 그 만큼 더 밝게 될 것이다.

대학의 自治權의 確保와 大學院의 혁명적 발전을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大學은 學問的 象牙塔으로서도 專門的 指導者의 養成機關으로서도 또는 全人의 人格의 道場으로서도 수 많은 취약점과 무방비 상태를 드러내 놓고 있다. 또한 대학 사회에 있을 수 있는 政治·經濟·社會·教育·文化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있음직한 理想主義運動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므로 地下로 숨거나 枯死狀態에 있다. 반면에 現實主義的 安住나 敗北的 逃避가 지배적 潮流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조국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學問이며 眞理라고 하겠다. 진리의 산실인 大學을 어떻게 彫刻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보통 사람 大統領 盧泰愚의 象徵的 意味가 역사 속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